

현대로템 투자 계기 '판 키운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총력

무주군, 항공우주산업 중심지 도약 위한 '동시다발 전략' 나서

무주군이 항공우주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동시다발 전략'에 나섰다. 23일 밝혔다. 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까지 한 번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방문해 '항공우주산업 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광역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단순 공모 대응을 넘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조율을 나선 점이 특징이다.

이번 행보는 최근 현대로템과의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이후 본격화됐다. 무주군은 이를 계기로 항공우주 및 첨단 방위산업까지 확장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방문에서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군은 항공우주 관련 기업 유치 기반과 산업단지 조성 여건,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공모 선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될 경우 규제 완화와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뒤따른다. 무주군은 이를 통해 산업 유입의 '바중물'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에서는 산업 투자와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무주군은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물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요 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무주~김천 대덕 구간(국도 30호) 개량 △설천 삼곡~두길 구간(국도 37호) 개량 등이다. 여기에 더해 군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안성~적상 구간(국도 19호) 4차로 확장 사업도 과제로 제시됐다.

무주군은 확보한 투자 기반 위에 국가사업 지정을 더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투자선도지구 공모 일정에 맞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논리도 강화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만전

진안군, 2차 읍·면 담당자 교육·최종 점검 마쳐

진안군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군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23일 진안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2차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이번 2차 교육은 지급 개시를 앞두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기준과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교육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세부 지원 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 △신청·접수 시스템 운영 실습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민원 대응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실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읍·면 콜센터 운영 방안과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의 신청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촘촘한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접수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도 진행됐으며, 담당자 간 협업 체계를 재확인하고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종 점검이 이뤄졌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접수 기간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1

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50만 원, 일반 군민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금융사 및 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은 dak 앱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군은 이번 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을 물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1분기 방문객 전년 대비 증가... 관광 마케팅 성과

진안군은 올해 1분기 총 방문객 수가 약 184만 명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0만 명이 증가하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군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한 맞춤형 관광 정책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진안군은 연초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여행경비 지원 이벤트 △1박 2일 행복숙박' △스탬프투어 '빠방이를 찾아라' △진안고원 스탬프여행 지원사업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등 5대 지원 이벤트를 추진했다.

특히 군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각종 혜택과 관광 정보를 널리 알리면서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계절적 요인과 관광 인프라 개방도 방문객 증가에 힘을 보탰으며, SRT매



거진과 KTX매거진을 통해 주요 관광지 와 축제를 전국 단위로 홍보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국 청년들로 구성된 글로벌 홍보단을 위촉해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마케팅을 전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식품부 '5개 군 추가 선정' 공고 따라 행정력 집중

진안군은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1차 선정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군비(200억 원)를 투입해 군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주민 설문조사 실시 (91.8% 찬성) △관련 조례 개정 및 상반기 사업비 확보(50억 원)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며, 특히 중요한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3월 16일 완료하는 등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민간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5개 군 추가 선정'을 공고함에 따라 진안군의 추진 방향이 전환됐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추가 공모의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 화폐(카드형)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 자체 사업(연 40만 원)보다 군민 혜택이 훨씬 크다.

이에 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 군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릴 기회라는 판단 아래, 자체 사업 준비를 잠정 보류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하는 정부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및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체 시범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전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진안군이 자체 사업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마친 점은, 이번 정부 공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도' 및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추가 공모의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들 5개 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 군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릴 기회라는 판단 아래, 자체 사업 준비를 잠정 보류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하는 정부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및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체 시범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전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진안군이 자체 사업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마친 점은, 이번 정부 공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도' 및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추가 공모의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들 5개 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 군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릴 기회라는 판단 아래, 자체 사업 준비를 잠정 보류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하는 정부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및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체 시범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전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진안군이 자체 사업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마친 점은, 이번 정부 공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도' 및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추가 공모의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서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3일 무주군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경찰서-무주군 가족센터, '맞손'

무주경찰서(서장 김은희)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3일 무주군 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심리상담 연계, 안전조치 및 모니터링, 범죄 예방 교육 관련하여 경찰과 가족센터간의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특히 결혼 이민자가 많은 무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결혼 이민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및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범죄 예방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은희 무주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족센터와 상시 긴밀히 협력해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보건의료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 배부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총 25개소에 기피제 무료 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군은 물품 배부 시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하고, 안내데스크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택시 이용권 지원

무주군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면허 반납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택시 이용권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택시 이용권은 병원 진료와 장보기, 외출 등 일상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지원은 월 3회 이용이 가능하며 회당 최대 2만5,000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특히 기존 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 지급에 더해 지속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복합민원 예약제 신속 민원서비스 강화

장수군은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 예약제'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 절차, 담당부서 확인, 구비서류 안내 등 복잡한 행정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개별행위허가, 건축 관련 인허가, 산지 관련 인허가 등으로, 분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중 운영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